

사노피, 서울대학교병원과 '미래 임상 혁신'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 AI, 디지털 등 최신 기술 기반 '환자 중심 임상 모델' 구축 위한 공동 연구 본격화
- * 글로벌 임상 생태계 선도를 위한 데이터 기반 협력 체계 마련 기대

대한민국 서울, 2025년 6월 4일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의 한국법인(이하 사노피, 대표 배경은)은 6월 2일 서울대학교병원(병원장 김영태)과 '미래 임상시험 환경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이하 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AI), 디지털 헬스케어, 정밀의료 등 첨단 기술 발전으로 임상시험의 설계와 운영 방식이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양 기관이 데이터 기반, 환자 중심의 글로벌 임상 연구를 공동으로 선도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연구중심병원으로서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력을 갖춘 서울대학교병원과 글로벌 임상 역량을 보유한 사노피가 힘을 모아 기술 기반의 미래 임상 환경을 공동 구축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MOU는 단순한 임상시험 효율화를 넘어, ▲참여자 중심의 임상 경험 향상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 강화 ▲글로벌 임상 연구 네트워크와의 연계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연구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이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데이터 중심의 임상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외 임상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증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MOU에는 사노피 본사의 글로벌 임상 운영 책임자(Global Head of Clinical Operations)인 Kelly Simcox와 APMEA(Asia Pacific, Eurasia, Middle East & Africa)지역 임상운영부 책임자인 Yannick Bentz 등 글로벌 리더십이 직접 참석하면서, 국내 R&D 협력에 대한 글로벌의 높은 기대를 확인했다. 사노피는 서울대학교병원이 보유한 디지털 헬스케어 역량과 연구 인프라에 깊은 관심을 표하며, 이번 협력이 글로벌 임상시험 혁신을 가속화할 전략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사노피는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임상시험 혁신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한편,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치료 접근성 확대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연구 생태계 조성에 힘을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임상시험 혁신 모델이 국내 의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대학교병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임상시험 개발에 집중할 방침이다.

배경은

사노피 한국법인 대표, 한국 및 호주/뉴질랜드 제약(Pharma) 총괄 다국가 리드

“임상시험은 단순한 연구를 넘어, 환자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료의 한 단계인 만큼, 디지털과 AI 같은 혁신 기술이 접목될 때 환자 입장에서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 있는 시도를 국내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서울대학교병원과 함께 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 서울대학교병원과의 이번 협력은 임상시험의 전 과정을 보다 정밀하고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무엇보다 임상시험 참여자의 편의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노피는 앞으로도 국내의 유수의 기관들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연구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진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장

“임상시험 환경의 디지털 전환은 환자 중심의 의료 실현과 연구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변화”라며, “서울대학교병원은 사노피와 함께 환자 중심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참여자의 경험과 연구 품질을 동시에 향상할 수 있는 디지털 임상시험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세계 최고의 교육, 연구, 진료를 통해 인류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사명을 바탕으로, 국내 임상 연구의 질적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노피는 국내 병원, 기업, 연구소 등 다양한 R&D 전문 기관들과 협력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의약품 연구 시너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2012년에는 임상시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제적인 임상시험센터 네트워크 프로그램 '프리미어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아시아 최초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과 협약을 맺고 글로벌 수준의 임상시험 협력 체계를 형성했다. 이후 2018년에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MOU를 추가로 체결하며, 현재 총 5개 국내 상급종합병원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노피는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임상 연구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